

보도시점

2025. 9. 22.(월) 16:00

배포

2025. 9. 22.(월) 13:30

AI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 개최

- 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유관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의견 청취 등 소통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9.22(월) 15시,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관계 기업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AI 및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9.22(월) 15:00, 각 세종(세종시 집현동 소재)
- 참석 : (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주재),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장
(학계) 서울과학기술대 KAIST 교수, (유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업계) 네이버클라우드, SK브로드밴드, KT, LG CNS, 카카오, 엘리스그룹

오늘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추진중이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AI가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 산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조세정책에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여 향후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제도를 통해 AI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책임자	과 장 문경호 (044-215-4130)
		담당자	사무관 현원석 (1shyeon@korea.kr)
			주무관 공동준 (dongjun0@korea.kr)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